



## 강생의 터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는 자살위기가정, 중독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성폭력·가정폭력가정, 이주노동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정을 돌보며 정서적인 지지와 문제해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 11월 서울주보에 이곳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총 685명의 후원자께서 117,649,852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넓은 컨테이너에서 솔방울에 불을 피워 라면을 끓여 드시던 형제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안토니오 형제님(67세)이셨습니다.



후원금으로 형제님이 생활하시는 컨테이너 내부를 말끔히 치워드리고, 수도와 가스를 연결해 싱크대와 가스레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앞마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천막을 쳐서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막공장 사장님께 설치비를 드리려 하니 직접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을 통해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자신에게도 복이라며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요즘 컨테이너 앞 텃밭을 가꾸느라 분주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키우다 보니 자신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 상추, 쑥갓, 오이, 감자, 파, 양파 등 각종 야채를 수확해서 수녀님과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에 형제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이 형제님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랑은 다시 천막공장 사장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고, 그렇게 이어진 사랑이 다시 형제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형제님이 손수 기른 야채를 뽑아 커다란 봉지에 꼭꼭 담아 주시면 그것은 또 독거 어르신들 밥상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랑으로 차려지고, 그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눔과 돌봄이라는 선한 일을 하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생명의 순환을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 가정방문을 다니시기에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잦은 고장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후원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정서적 지원(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장학금 지원(가난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4) 중독치유 프로그램 및 한글학습(알코올중독 치료자들이 단주생활을 유지하도록 중독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한글 학습), 5) 우울증 환자를 위한 야외활동 및 바깥활동, 6) 지역사회기관 연계(활동도우미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 수급권 획득하고, 생계비나 도시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가장 절박한 곳에서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들께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